

# 美 코로나 확진 3만명 넘어...3개주 재난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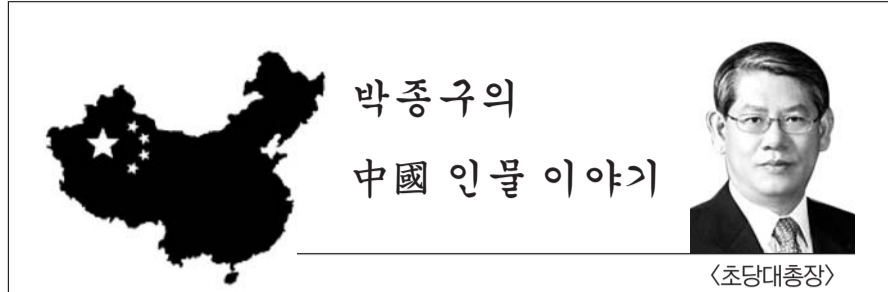
### 사망자도 급증 400명 넘어서 뉴욕 등 3개주 주 방위군 배치 8개주 1억명 자택 대피령

미국의 코로나19 환자가 22일(현지시간) 3만명을 돌파하는 등 급속도로 늘고 있다. 미국 존스홉킨스대학은 이날 오후(미동부시간 오후 10시 현재) 코로나19 감염자가 3만3276명, 사망자는 417명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전날 오후 2만6000여명이었던 미국의 코로나19 환자가 하루 새 3만명대로 올라선 것이다.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브리핑에서 "현재까지 미국인 25만4000명이 코로나19 검사를 받았고, 이 중 3만여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

다"고 확인했다. 미국의 코로나19 환자가 3만명을 넘은 것은 지난 1월 21일 첫 코로나19 환자가 나온 이후 두 달 만이다. 국가별 감염자 현황으로는 중국(8만1432명)과 이탈리아(5만9138명)에 이은 세계 3위다. 미국에서 감염자가 가장 많이 나온 뉴욕주의 상황은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다. 앤드루 쿠오모 뉴욕주지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뉴욕주의 코로나19 환자가 1만5168명으로 급증했고, 사망자는 114명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미국 전체 환자의 45%, 사망자의 27%가 뉴욕주에서 나왔다. 존스홉킨스대학의 국가별 현황 통계에 따르면 뉴욕주의 감염자는 1만명 아래인 한국, 스위스, 영국보다 많았다. 코로나19 환자 유형도 다양해지고 있다. 워싱턴포스트(WP)와 CNN방송에 따르면 뉴욕의 한 병원에서는 일부 산모가

코로나19 증상을 보여 외부 방문객을 차단한 채 정밀 진단에 들어갔고, 조지아주 애틀랜타에서는 폐렴 증상의 12살 소녀가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19 환자가 급증하자 뉴욕주와 워싱턴주, 캘리포니아주가 요청한 연방정부 차원의 중대재난 지역 지정을 승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브리핑에서 "우리는 진정한 의미에서 전쟁 중"이라며 "보이지 않는 끔찍한 적과 싸우기 위해 우리는 매일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19 환자가 많이 나온 이들 3개주 등 '핫 스팟' 지역에 추가 의료지원과 주(州) 방위군 배치를 지시했다. 또한, 미 육군 공병단은 뉴욕주에서 임시 의료시설 건설을 지원하고, 미 해군 병원선(船)인 '머시' 호는 로스앤젤레스에 배치된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러한 조치는 앤드루 쿠오모 뉴욕주지사와 빌 더블라지오 뉴욕시장, J.B. 프리처크 일리노이주지사 등이 의료물자 부족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연방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한 뒤에 나왔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자택 대피령도 이어졌다. 델라웨어주는 5월15일까지 식료품 구매와 병원 방문 등을 제외한 불필요한 바깥 활동을 자제하고 집에 머물라는 행정 명령을 발표했다. 또 루이지애나주와 오하이오주가 다음 달 초까지 적용되는 자택 대피령을 내렸고, 펜실베이니아주의 최대 도시인 필라델피아와 테네시주의 내슈빌도 자택 대피령 조치에 동참했다. 이에 따라 미국에서 자택 대피령을 발령한 주는 뉴욕과 캘리포니아 등을 합쳐 모두 8곳으로 늘었으며, 이들 지역의 주민은 1억 100만여명에 달한다고 CNN방송은 보도했다. /연합뉴스



박종우의  
中國 인물 이야기

〈초당대총장〉

### 〈25〉 황정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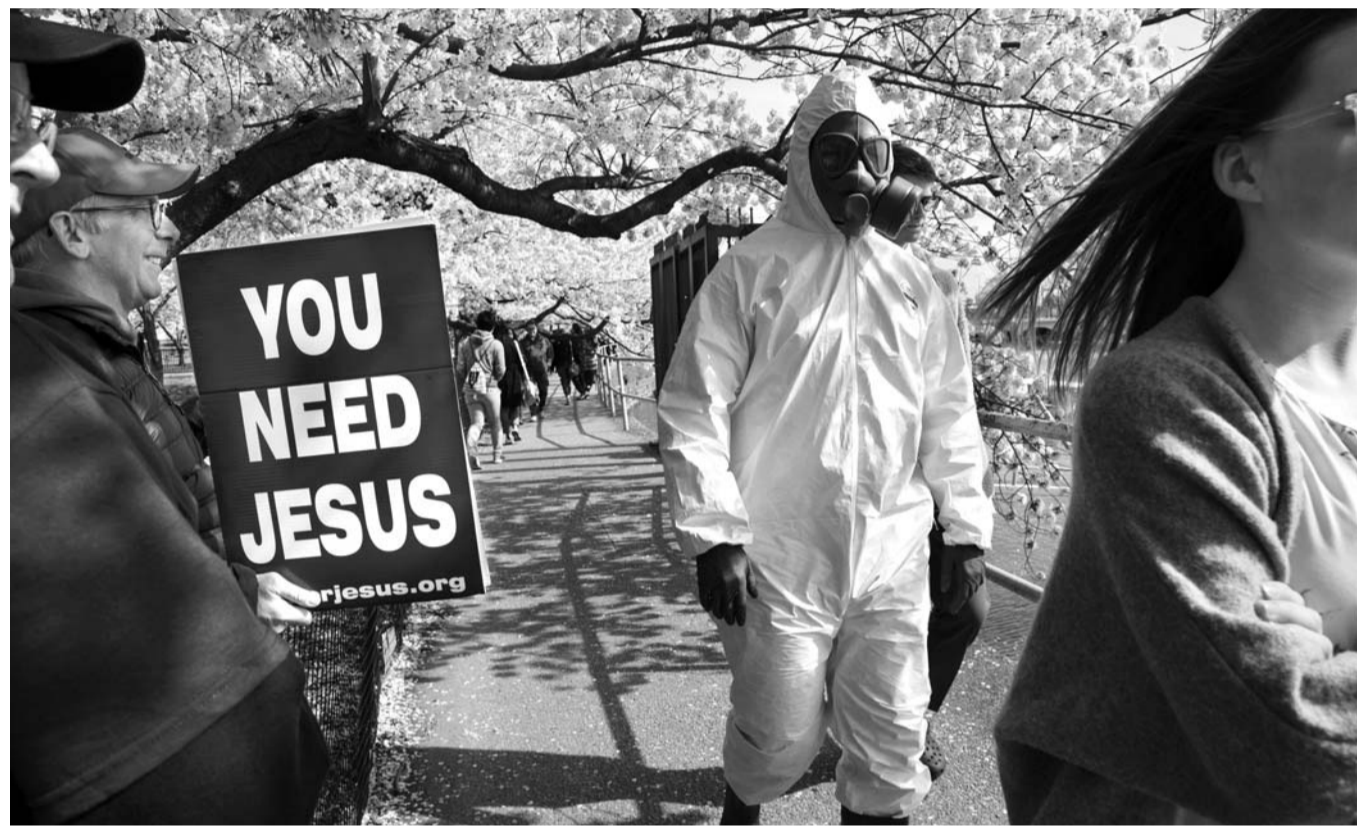
황정견(黃庭堅, 1045-1105)의 자는 노직(魯直)이고 호는 산곡도인(山谷道人)으로 강서성 분령 출신이다. 북송 신중, 철종, 휘종 때의 시인이자 서예가다. 부친은 시를 사랑하고 책을 애독한 지식인이었다. 외숙부 이상(李常)도 선비로 어린 황정견에게 적잖은 영향을 미쳤다. 어려서부터 총명했고 책임 있는 것을 즐겼다. 일곱 살 때 지었다는 목동시(牧童詩)를 보면 조숙한 천재성을 엿볼 수 있다. 농촌 생활의 평안함과 다른 세속적 삶의 덧없음을 묘사했다. 세속적 명리 보다는 정신적 지고함을 중시하는 인생관을 잘 보여 주는 시라 할 수 있다. 지평 4년(1067) 23세에 진사시에 합격해 관리

표했다. 진사도, 진영의, 여보중 등과 함께 강서시파(江西詩派)의 핵심 인사가 되었다. 여보중이 휘종때 강서시파 종사도를 편찬해 후일 강서시파로 불리게 되었다. 개인적인 생활 경험이나 각각의 주관적 감성을 주로 묘사했다. 북송 말기를 거쳐 남송 시대에 이르러 시단 전체에 폭넓은 영향을 미쳤다. 육유, 양만리, 우무, 범성대는 남송사대가(南宋四大家)로 칭하는데 강서시파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장돈, 채변이 신중신록 편찬과 관련해 그를 탄핵할 때의 일이다. 그들은 천여 개의 조항을 근거가 없다고 문제 삼았다. 실무진들이 검토한 결과 실제로 근거가 없는 것은 겨우 32개 조항에 불과했다. 그가 쓴 내용에 "철제 갈퀴로 황하를 치수하니 아이들의 장난과 같았다"는 부분이 있었다. 이에 대해 하

### 북송 시인·서예가...강서시파 핵심

생활을 시작했다. 하남성 옌현, 강서성 태화 지현을 역임했다. 국가감 교수를 거쳐 철종 원수 원년(1086) 비서승 겸 국사편수관이 되어 신중실록을 편찬했다. 실록을 왜곡 편찬했다고 신법당의 장돈, 채변에게 탄핵을 받아 사천성 검주에 유배되었다. 1101년 휘종이 즉위하자 일시 재기용되었지만 광서성 의주로 유배되어 생을 마쳤다. 젊어서 소식은 그의 작품을 보고 당대에 필적한 사람이 없다고 극찬했다. 문명을 크게 떨쳤고 진관, 조보리, 장뢰와 함께 소문사학사(蘇門四學士)로 불렸다. 정치적으로는 소식과의 인연으로 구법당에 속해 왕안석의 신법을 비판했다. 소식과는 서로 시를 주고 받는 문인으로 인연을 맺었다. 세상 사람들은 둘을 소황(蘇黃)이라 불렀다. 소식의 추천으로 신중실록 편찬에 참여했는데 신법을 왜곡했다는 이유로 유배되어 남방의 습기차고 무더운 날씨를 견디며 창작 생활을 이어갔다. 성당 시대 두보의 시풍을 많이 따랐다. 시어의 구사에 신중을 가하고 시상을 응축시키는 구성 방식, 글자 하나하나에 정성을 기울이는 태도를 견지했다. 시의 창작과 관련해 환골탈태법(換骨奪胎法)을 제시했다. 옛 시인들의 시구를 창조적으로 모방해 새롭게 거듭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나라의 이백, 백거이 등의 시를 새롭게 창작한 작품을 발표

문하자 "내가 당시 국자감 교수로 재직 중이었는데 참으로 아이들 장난 같이 보였다고 답하였다. 신중 원풍 연간(1078-85) 조정지가 덕주의 통판으로 근무했는데 황정견이 덕평진 검감의 직위에 있었다. 조정지가 덕평진에서 시역법을 시행하려고 하니 황정견이 반대했다. 덕평진이 지역이 작고 주민도 가난해 부담을 감당하기 어려웠을 때 백성들이 뿔뿔이 흩어질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강직한 성품을 보여주는 일화로 소식의 회고다. 숭년 연간 사마광, 소식 등 구법당의 잘못을 밝히는 원수당인비를 세웠다. 태수가 비석을 세기는 사람을 불러 지시하니 그가 말하기를 "예전에 소인의 집안은 가난했는데 소식과 황정견의 문장 및 글씨를 새겨서 마침내 배부르고 따뜻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황정견의 이름을 두고 간사한 인물이라고 새기라 하시니 진실로 차마 할 수가 없습니다." 태수가 이를 의롭게 여겨 말하기를 "어질구나. 사대부일지라도 오히려 그대에게 미치지 못할 것이다." 조정지가 어사승승이 되자 황정견이 이의를 제기했다. "조정지는 장돈, 채변, 증포에게 아침에 승진했습니다. 이런 까닭에 사대부들이 그를 다른 고장 출신의 복건사람(福建人)이라고 부릅니다. 굶어 살려주십시오."



코로나 완전 무장하고 벗꽃 구경 미국 워싱턴DC 벗꽃 거리에서 22일(현지시간) 10대 청소년이 코로나19 예방용 방호복과 방독면·부츠·장갑을 착용한 채 걸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 트럼프 "북한·이란 코로나19 기꺼이 도울 의향...따뜻한 손길"

### 대북 친서 보낸 사실도 확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 북한과 이란 등이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다면서 기꺼이 도울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대북 친서를 건넨 사실도 확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태스크포스(TF) 브리핑에

서 "북한의 김정은(국무위원장)에게 코로나바이러스와 관련된 협조를 추구하는 친서를 보냈는가"라는 기자 질문에 "그렇다. 많은 나라에 대해..."라고 답했다. 이어 "많은 나라에 대해 그들이 도움을 필요로 한다면 우리는 그들에게 도움을 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발언과 관련, 워싱턴포스트(WP)는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를 물리치는데 있어 도움을 제안하는 서한을 북한과 이란을 포함한

나라들에 써서 보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보도했고, CNN방송도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 대한 친서 전달 사실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특히 끝나고 될 새로운 검사와 관련하여 아무도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을 갖고 있지 못하다"면서 "북한, 이란, 그리고 다른 나라들"이라고 거론한 뒤 "우리는 다른 나라들을 돕는데 열려 있다"고 거듭 밝혔다. /연합뉴스

### '박사방' 사건 선진국 처벌 영국, 70대 22년형 선고 美, 저장만 해도 20년형

미국과 영국을 비롯한 선진국에서는 미성년자 성착취물에 관여한 이들은 제작부터 소비까지 행위의 종류를 불문하고 중범죄자로 처벌을 받는다. 최근 영국의 사례를 보면 처벌 수위가 얼마나 강력한지 단적으로 알 수 있다. 23일 영국 검찰에 따르면 버밍엄 주민 콜린 다이크(77)는 필리핀에 있는 아동들에게 돈을 주고 성행위를 시키고 이를 지켜보는 행위 등의 공소사실이 인정돼 지난달 징역 22년을 선고받고 수감됐다. 아동에 대한 성범죄를 사주하거나 조장한 혐의 6건, 아동 성행위에 돈을 낸 혐의 4건, 아동에게 성행위를 시키거나 부추긴 혐의 4건이 다이크에게 적용됐다. 미국에서도 어린이 성착취물에 대한 처벌이 유럽 이상으로 강력하다. 아동 포르노물을 알면서 소유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에게는 최대 10년형까지 선고될 수 있다. 포르노물에 등장하는 미성년자가 12세 미만이라면 형량이 최대 20년까지 늘어날 수도 있다. 어린이들이 성행위를 하도록 유도하거나 설득하는 사람들은 의무적으로 최소 15년형이 선고되고 죄질에 따라 형량이 최대 30년까지 가중될 수도 있다. /연합뉴스

# 그린궁 GREEN GOONG PRIME EVER 120

## 프라임에버 120

###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